



promy life

<프로미라이프>는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DB손해보험 PA(Prime Agent)가 우수 고객님께 드리는 생활 정보지입니다.

기종사랑 양속
양속 지킴이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www.idbins.com

계약 · 사고접수 상담 : 1588 0100

TM 전용상품 상담 : 1566 0100

보험계약대출 · 신용대출 상담 : 1544 0100

2020

새로운 10년을 만나다

2020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는 어떤 한 해를 맞이하게 될까요?



2020

New year Vol. 48

promy life

CONTENTS

발행일 2020년 1월 2일(통권 48호)·비매품

발행인 김정남

편집인 김영만

발행처 DB손해보험 홍보팀 02. 3011. 3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기획·디자인 에디아커뮤니케이션 02. 6242. 5551

인쇄 강원일보사 02. 733. 7228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프로미라이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2020, 새로운 10년을 만나다

- 04 **1% 성장률 시대가 온다**
2020 경제와 성장기 전망
- 08 **트럼프가 낙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포츠, 정치, 역사로 풀어보는 2020년 경제
- 12 **New Normal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
2020 자산관리 어떻게 할까?

Brief Report

- 16 **'서울·신축·분양 시장'에 주목하라**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전략
- 20 **타이밍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2020년 주식투자, 무엇을 보고 결정할 것인가

Economic Class

- 24 **빛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도 있다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손해보험
- 28 **고전파를 뒤엎은 케인즈 혁명**
불황의 경제학

With Promy

- 32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 36 **가족사랑 우체통**
- 38 **DB News**



2020, 새로운 10년을 만나다

2020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는 어떤 한 해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난 해보다 더 깊은 불황으로 빠져들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새해의 경제 전망과 한 해를 설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promy life

소중한 _____ 고객님께
_____ 드림



2020

2019년 3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제껏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해왔던 '1% 성장을 시대'가 우리의 이야기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 우리 경제는 어떠한 모습일까? 시장에서는 2020년 경제성장률이 2019년보다는 소폭 높아진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이 해소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및 재정 확대정책 등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성장률 시대가 온다

2020 경제와 중장기 전망

2020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협요인 :

① 내수경기 회복 지연

경제성장률 수치가 조금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2020년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

을 갖기에는 아직도 많은 위협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는 2019년 성장을 부진의 원인이었던 투자와 소비 즉, 내수경기가 뚜렷한 개선세로 전환되기 힘들어 보인다는 점이다. 2019

년 3분기까지 설비투자의 마이너스 증가율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몇 년째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설투자도 건설 수주나 건설 착공 등 선행지표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투자와 함께 내수경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소비 역시 가계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예전보다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점 역시 부담요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지출이 성장률 수준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더욱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는 이상, 얼어붙은 소비

와 투자가 개선되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아 보인다.

2020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협요인 :

② 중국발 경기둔화 리스크

둘째는 중국 발(發) 경기둔화 리스크다. 2019년 10월 IMF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신흥국(Emerging Market) 경제성장률은 4.6%로 올해 3.9%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신흥국인 중국의 성장을 둔화이다. 2003년 이래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총수출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

를 둔화는 대중국 수출 급감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에 직접적이고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세계 주요국 중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는 대만과 우리나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 발발 이후, 2019년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분기 6.4%에서 2분기 6.2%, 3분기 6.0%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IMF 역시 2020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 6.1%에서 5.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중국이 6%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협요인 :

③ 대외 불확실성 확대

셋째는 2020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소폭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국제적 요인들이 최소한 2020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일부 세부항목에서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 개방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환율 조작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한 완전한 수준의 합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는 실질적인 타격보다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부품·소재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입는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상당 부문은 중장기적으로 수입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이슈 역시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중국 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위기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투자와 소비부진 등으로 내수 부문에서의 경기 하방압력이 크기 때문에 상당 기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

운데, 당분간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경기둔화 국면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단기간 내 글로벌 금융과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경험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을 우려할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하락속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7%를 상회했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후반 3%대, 그리고 2010년대 후반 2%까지 떨어졌다. 지난 20년간 1/3 토막이 나버린 것이다. 더욱 우울한 소식은 지금부터 약 5년여 이후인 2020년대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 국면의 초입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명목 GDP성장률이 실질 GDP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성장에 있어 정부 의존도도 높아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대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고령화나 양극화 심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둔화 등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현실은 선진국이 되면서 의례적으로 겪어야 할 문제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보다 발빠른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재호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그룹전략연구실장

금융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금융과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낙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포츠, 정치, 역사로 풀어보는 2020년 경제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비교되곤 한다. 그 자체의 변화무쌍한 습성 때문이기도 하고, 다양한 외부 변수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이번 기고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2020년 경제를 예측해 보는데 있어 경제 지표나 경제 이슈를 훑어지게 쳐다만 봐선 안 된다. 의외로 정치 이벤트나 스포츠 행사 일정, 역사를 공부해 보는 것으로 세계 경제의 맥을 짚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2020년에 예정된 주요 이슈들 가운데 3가지를 선별했다. 올림픽과 대통령 선거, 미-중 패권 다툼이 2020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2020 일본 동경 올림픽 : 5G, 평창 올림픽의 기억



2020년 여름, 일본 동경에서는 전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열린다. 필자는 올림픽이 주로 서구권에서 개최될 때 새벽까지 대부분의 경기를 시청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다. 스포츠 그 자체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스포츠의 박진감을 간접적으로 느끼기 위해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를 챙겨본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관심사가 추가돼 국제 행사를 눈여겨 본다. 바로 글로벌 트렌드다.

전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30~50억 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올림픽, 월드컵 등은 당대 전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상품이나 콘텐츠를 선보인다. 엄청난 광고 및 마케팅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은 '5G'다. 5G는 5세대 통신 인프라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통상 LTE로 알고 있는 4세대(4G)보다 무려 20배나 빠르고, 처리 용량이 100배나 많아지는 기술이다. 사실 5G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선점하려 했던 이슈다. 하지만 당시 기술적인 제약으로 상용화를 하기에 이른 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5G보다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의 기억이 더 강하다.

우리는 5G 기술을 5G폰으로 쉽게 접하게 되는데, 2019년 삼성전자에서 출시한데 이어 2020년에는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 들어 경쟁하게 된다. 상용화를 넘어 본격적으로 진화하는 시기가 2020년인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관련 산업의 투자가 늘게 되고, 시장을 선점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 대선 : 사전적 효과와 사후적 효과

지금의 경제학(Economics)은 정치학(Politics)에서 태동해 1700년대 정치경제학(Political-Economics)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가 본격적으로 연



구된 것은 불과 300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출발이 그랬듯 경제는 정치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특히 요즘처럼 민간의 경제 활동이 둔화돼 정부의 정책적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미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가 2020년 11월에 열린다. 바로 대통령 선거다. 지키려는 자(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와 탈환하려는 자(민주당)의 대결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2020년 세계 경제에 미국의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2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사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정책 조치들이 다수의 공약으로 약속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정부는 지난 4년간의 경제 성적을 평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선 직전까지 경제를 꺼지지 않게 노력할 의무가 생긴다. 이것이 2020년 미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배경이다.

다른 하나는 사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인지, 민주당 후보의 정권 교체인지에 따라 경제 정책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감세를 비롯해 약 가격 인하, 멕시코 장벽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감세 철회와 복지 증대,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한다. 이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로 하여금 대규모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대선이 치러진 후에는 트럼프의 연임은 정책의 연속성으로, 정권 교체는 정책 기초의 변화가 불가피해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미-중 패권 다툼 :
극한 경쟁 속에 미래 산업의 진전이 있다**



2020년을 포함해 향후 수년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최대 이슈는 뭘니뭘니 해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무역분쟁, 환율 조작극, 무역협상 등을 개별 사안으로 접해 왔다. 하지만 그 본질은 '패권 다툼'이다. 기존 강국인 미국에 신흥 강국인 중국이 부상해 갈등 구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9세기까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독일 등의 군국주의 세력이 도전했을 때에도, 20세기 들어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선 후 소련이 그 아성을 위협했을 때에도 전세계는 편을 가르고 싸웠다. 그 역사적 사례들은 현재에 이르러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립적 상황은 경제적으로 2가지 특성을 보여왔다. 하나는 자유 무역이 아닌 보호 무역이다. 편가르기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경제/무역 부문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지금이 그렇다. 국제 무역에 있어 관세/비관세 장벽은 활발한 국가간 거래를 방해한다.

다른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다. 20세기 초 제조업의 대량생산 기술이나 냉전시대의 우주항공 기술은 극한의 경쟁 체제의 산물이다.

지금은 미국의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MAGA(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와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가 대립 구도 속에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미래 산업 발전은 양국의 경쟁을 통해 더욱 진전될 것이다.

	<p>안영진 : SK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p>
<p>경제TV와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및 환율 분석이 전문 분야입니다.</p>	

New Normal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

2020 자산관리 어떻게 할까?



우리 경제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뉴 노멀'*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低) 현상이 고착화 된 이제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노멀(Normal)한 시대가 되었다. 저성장의 기초가 짙게 깔린 2020년, 자산관리 전략의 핵심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게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것은, 첫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중수익 투자전략과 둘째,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는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한 안정적인 투자전략

저성장과 시장의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증가를 의미한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투자의 리스크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자산 투자, 장기적 투자, 분산투자가 더욱 중요해 진다.

◆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자산에 투자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컴(Income)형 투자' 비중을 높인다. 인컴형 투자란 주기적인 현금수익이 창출되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 3·6·12개월마다 이표(쿠폰)가 나오는 채권, 매 6개월마다 배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동산펀드나 리츠(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매년 또는 수시로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미 선진국들이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해오던 투자전략이었다.

인컴 펀드는 채권, 고배당주, 리츠 등에 분산 투자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보다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채권 이자와 배당, 임대 소득 등을 노리는 펀드이다.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상품에 투자하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컴 펀드는 '정기적으로 수익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펀드 별로 담고 있는 자산이 달라 수익률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컴 펀드를 고를 때에는 고배당을 노리는 주식형인지, 이자가 비교적 높은 글로벌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인지, 임대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형인지 확인해야 한다.

◆ 중수익·중 위험 상품에 주목

저금리시대에는 과거처럼 고금리를 기대하기 보다는 정기예금 금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을 목표로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저금리 수준을 감안해 원금보장 상품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 뉴노멀(New Normal) : 세계적인 채권운용사인 핼코(PIMCO)의 대표였던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2008년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했던 용어이다.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시장의 붕괴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시점에서 엘에리언은 향후 전세계 경제가 겪게 될 장기적인 트렌드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현상의 보편화를 제시했다.

국민 재테크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할 때도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기상환 기회가 많은 리자드형 ELS를 눈여겨보자. 리자드형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이기에 중위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중위험 투자상품인 부동산 펀드는 최근 5년 평균수익률이 95%로 수익률이 좋다. 연평균 4~7%의 임대수익에다 부동산 매각 차익까지 더해지면서 장기 수익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 부동산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자금을 은행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길 원한다면 증권사의 발행어음도 매력적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 이후 대형 증권사에서 판매 중이며 기간에 따라 약정형, 수시형, 적립식 등 투자방식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외화 발행어음까지 출시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발행어음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다.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 대출, 부동산금융 등 비교적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다.

위기를 먼저 감지해야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경제위기설과 불확실성이 팽배한 지금,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패닉에 빠지게 된다면 그 어떤



자산관리 전략도 성공할 수 없다. 위기가 오는 것을 감지하고 거센 풍랑을 피해야만 적극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양한 경기 변화의 시그널을 포착하고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선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럼 눈여겨보아야 할 경기 시그널은 무엇일까?

◆ **금리** : 금리인하는 경기의 활황이 끝나고 경기둔화의 신호가 감지됐다는 의미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멈추고 금리인하로 변경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금리인상 중단 후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하지만, 이 같은 주가 상승은 불이 꺼지기 직전 타오르는 마지막 불꽃 같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단기 금리의 역전'도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아니다. 위기의 시작은 금리의 역전 이후 통상적으로 6~18개월 뒤에 경기침체나 위기가 찾아온 경우가 많다.

◆ **인구** : 저출산율과 고령화는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의 인구구조 약화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자산 가격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장애요인이다. 각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감소와 출산율, 고령화 속도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요한 위기의 시그널로 봐야 한다.

◆ **환율** : 국가간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단초
신흥국에 투자할 경우엔 금리보다 환율이 더욱 중요하다. 신흥국은 통화 가치나 자산 가격이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눈 앞의 수익률보다는 환율의 추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환율의 예측은 다른 경제지표의 예측보다도 어렵기에 환율 위험을 피하려면 물가상승률이 높은 나라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그 나라의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언젠가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 **부채** : 규모 보다는 증가 속도에 관심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의 증가는 당연하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부채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위험한 신호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GDP 대비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매우 중요한 위기 시그널이다. 과거의 자

료를 보더라도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모두 위기 직전 5년 동안 민간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급등한 공통점이 있다. 부채의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의 진정한 위기는 늘어던 부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더 이상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부채의 증가 속도는 정체되기 때문이다.

◆ **버블** : 버블은 꺼지고 나서야 버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T 버블, 부동산버블이 그랬듯이 버블은 항상 경제위기를 가져온다. 뉴턴이 투자 실패 이후 "천재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버블의 근원은 탐욕적인 광기이다. 주가는 다른 경제지표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므로 주가가 폭락한 후 6~12개월 후에 실물경제가 악화한다. 버블 붕괴 후 초기 단계에는 일시적인 가격조정처럼 보여 버블에 올라타야 한다는 강렬한 유혹이 생긴다. 이럴 때 단순한 판단으로 자산을 사들였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신준배 :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부 본부장

금융 동향 전문가로 우리은행 PB 사업단과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금융 소비자와 직접 만나왔습니다.

‘서울·신축·분양 시장’에 주목하라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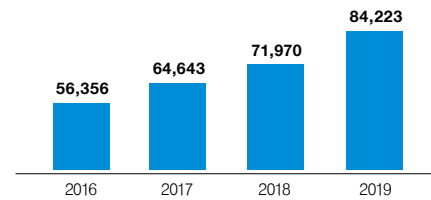


2020년 주택시장의 트렌드를 한 단어로 전망하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3강 시대’라고 얘기하겠다. 3강의 주축은 ‘서울·신축·분양시장’을 뜻한다.

서울 지역의 집값 강세는 202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은 2019년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는 기준금리(1.25%)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자금 유입에 따라 주요 인기단지과 인근지역의 키 맞추기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권 및 한강변은 가격 상승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학군 또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꾸준한 수요 등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실제, 2016년 이후 서울 아파트 호당 평균 실거래 가격은 매해 약 1억 원씩 상승하며 2016년 5억 6,356만 원에서 2019년 8억 4,223만 원으로 급등했다. 약 4년간 49.4%나 치솟았다.

[표1] 서울 아파트 호당 평균 실거래가 (단위: 만 원)



출처 : 직방RED

서울 집값의 강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최근 서울 지역 거래시장에 눈여겨 볼 뚜렷한 특징이 있다. 바로, 입주 5년 이하 신축아파트의 가격 강세다. 2019년 1월 서울 입주 5년 이하 신축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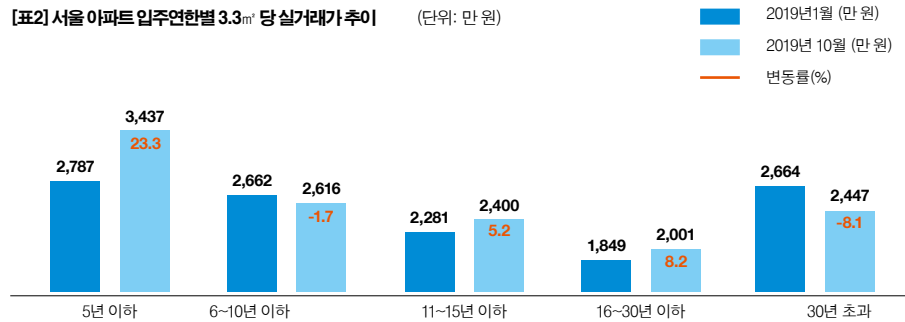
트의 3.3㎡ 당 실 거래가는 2,787만 원이었으나 10월 거래가는 3,437만 원으로 23.3% 급등하며 신축 강세가 상당히 뚜렷해졌다.

입주 5년 이하 신축은 낡은 아파트에 비해 실거주의 편리성과 임대차 선호가 높다. 또한 2019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서울지역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사업 속도가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적 우려감이 신축아파트의 가격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지위양도 금지와 분양권의 전매규제 때문에 새 아파트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면도 신축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열기도 뜨거울 전망이다. 2019년 10월 기준 1순위 전국 청약경쟁률은 13.6대 1, 서울은 26.2대 1이다. 서울지역 당첨 평균 최저가점은 49점으로 50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는 55.9~65.8점은 되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현실화되면서 저렴한 분양물량에 청약하려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대기자의 관심은 2020년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17~2019년간 전국 아파트 한 해 분양물량은 25~26만 호 수준이었다. 2020년에도 25만 호 안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4월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지의 물량 러시가 있겠지만, 국내 경제 성장을 둔화, 지방 입

[표2] 서울 아파트 입주연한별 3.3㎡ 당 실거래가 추이 (단위: 만 원)



출처 : 직방RED

주물량의 과잉이 지속되는 등의 문제로 아파트 분양 공급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명 대·대·광으로 선호되던 대구광역시(1만 5,054호)와 광주광역시(1만 1,745호)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해 공급부담이 가격 상승을 억누를 전망이다.

무주택자 · 1주택자 · 다주택자의 부동산 자산관리?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전략이 유효하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은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다.

무주택자 또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환경이 마련됐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의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활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출과 전매제한이 심해 단기차익 목적의 시장진입은 곤란하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2~3년 실 거주 의무 및 5~10년 전매규제가 동반된다.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돼 분양대금 마련에 주의해야 한다.

1주택자는 신축이나 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있다. 낡거나 보유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소유했다면, 분양시장의 무순위 청약이나 정비사업지(재건축·재개발)입주권·분양권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주택 추가 구입의 실익이 많지 않다. 보유가치가 있는 주택 위주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증여 등을 통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고전하는 수익형부동산 옥석 고르기가 중요

2019년 9월 기준 전국에 실거래 된 상업·업무 부동산의 거래량은 22만 2,310건으로 월

평균 2만 4,701건 거래됐다. 전년 동기(28만 1,750건)보다 21.1%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역시 14만 1,516건에서 11만 535건으로 축소되며 21.9% 감소해 수익형부동산은 상품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위축된 모습이다.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산자금이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임대 운용수익을 쫓아 수익형부동산 시장을 기웃대고 있으나 경기둔화, 공급과잉, 상가 임대차보호법 강화, 온라인 쇼핑 트렌드 등이 시장 확대에 발목을 잡으며 거래량 축소로 귀결됐다.

2020년에도 불확실한 국제경제 여건과 부진한 소비심리는 유의미하게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역대 최저 기준금리(1.25%)를 기록한 이후에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

낮은 금리가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겠으나, 이미 만성화된 저금리 환경과 디스플레이션 우려 등이 소비심리 회복과 구매력을 제한할 전망이다.

2020년은 수익형부동산 시장 전반에 고전이 예상된다. 고질적인 수익형부동산의 고분양가 문제도 상가·오피스텔 시장 투자 대기수요의 진입문턱을 높이고 있다.

오피스텔은 전용 30㎡ 이하 면적 유형의 투자 쏠림과 지역과 입주연한에 따른 가격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대학가,



업무밀집지역 같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신축 위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상가는 역세권 등 풍부한 유동인구가 보장된 상권이나 소득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업종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수요자를 유인할만한 매력 발굴의 지속성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며 분양가(매입가), 업종 배치, 공실 위험, 임대수익률 등 상가를 분양(매입) 받기 전에 여러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함영진 :
(주)적방 빅데이터랩장

각종 미디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년 베테랑 부동산 전문가로 최근 부동산과 IT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2020년 주식 투자, 무엇을 보고 결정할 것인가

2020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또 다시 부진을 이어갈까, 아니면 반등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2020년 글로벌 증시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큰 듯하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2020년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없지만,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접해본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2020년 주식시장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전망과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두 가지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GDP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에 대한 오해이다. OECD가 2019년 9월 발표한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잠정 집계되었다. 2018년 3.6%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OECD는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9년보다는 소폭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년 (4~5% 성장)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인 것임은 분명하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던 미국도 2019년 2.4% 성장에서 2020년에는 2.0%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역시 5.7%로 6%대 성장률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경제 전망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이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2019년보다 소폭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2% 초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도 성장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재정부양책과 지난해 낮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숫자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못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글로벌 증시는 상승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GDP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GDP에서 서비스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최종소비나 서비스에 연동되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통신, 음식료, 의류 등과 관련된 기업들은 별로 많지 않다.





최종 소비는 상장된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기업들은 최종 소비보다는 투자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 원자재를 채굴해서 제련하고, 이를 산업에 쓰일 수 있는 소재로 가공하며, 소재를 각 특성에 맞는 부품으로 만들고, 이를 조립하고, 조립하는 기계를 만들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깔고……. 이런 투자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게다가 최종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통신, 전력회사, 음식료) 등은 이익 변동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전체 주식시장 움직임에 주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주식시장에는 경제 전체의 GDP 성장률이 아니라, 투자사이클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최근 투자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GDP 성장률과는 달리 투자사이클은 2017년 말을 정점으로 2년째 둔화 사이클이 진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역시 2018년 초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2018년 초 고점에서 그리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2019. 10월 말 기준). 그런데 지난 2년간 하락하던 투자사이클이 2020년 초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공조,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FED와 ECB의 대차대조표 확대 재개, 미중 무역

협상의 부분적 타개 가능성 등이 투자사이클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투자사이클이 반등하면 사이클 하락 시기에 재고와 고용을 줄였던 기업들이 급하게 제품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투자수요 반등에 재고 확충 수요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 급등까지 동반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극대화된다. 따라서 2020년 경제성장률은 소폭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사이클은 지난 2년간의 하락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반등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과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보다 글로벌 경제

두 번째는 국내 경제에 대한 오해이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유독 부진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앞서 말한 투자사이클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를 보면, 2020년 주식시장도 암담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국 증시의 상장기업들은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상장기업 중 국내 매출 비중이 해외 매출 비중보다 큰 기업은 그리 많지 않으며, 주로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 많다. 게다가 최근엔 화장품, 음식료 등 국내 시장을 타겟

으로 했던 소비재 기업들조차도 중국 등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에 중요한 것은 국내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이다.

한국경제만 보면 한국 주식시장에 암담해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국내 경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제이다. 앞서 분석한 대로 2020년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과 글로벌 투자사이클은 오랜 부진을 마무리하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가 부진하더라도 한국 증시의 상장기업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

투자자들 중에는 한국 GDP 성장률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별로 상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두 가지 오해를 풀고 나면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2020년 글로벌 투자 사이클은 2년간의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다. 투자자들은 막연한 비관론에서 빠져 나와 주식시장의 투자 타이밍에 좀 더 날카로운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는 시기이다.



이은택 :
KB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증권 투자 분야 전문 분석가로 한국경제신문이 뽑은 2019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기술적 분석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빛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도 있다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등 건강, 은퇴 등의 주요 위험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우리 일상에서는 아이 혹은 가족 구성원이 상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또한 화재, 도난, 홍수,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등으로 인한 주거/사무/생산현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 관련 법률적 위험에 마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위험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제와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손해보험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을 간략히 살펴보고 손해보험의 중요성을 가능해 본다.



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아이를 가진 부모의 걱정 중 하나는 아이가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일 수 있다. 혹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아이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도 이러한 위험을 직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미칠 수 있는 것도 걱정일 것이다. 출퇴근 중에,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중에, 해외여행 중에도 이러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위험, 휴대품의 파손 위험 등은 여행자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여 여행할 때도 차량 고장 위험, 절도 등의 위험,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도 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이 손실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다른 주택으로 번져서 다른 주택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피해를 배

상할 책임도 발생한다. 화재뿐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등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피해들은 손해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 일상생활보장보험, 주택화재보험, 풍수

*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서는 사전적으로 위험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리스크 컨트롤(Risk Control)이라 한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발생했을 때 손해의 정도가 클 경우 위험 전가(Risk Transfer - 손해보험 등)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해보험 등이 앞에서 설명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차량 피해 혹은 자신의 상해, 타인의 차량에 끼친 피해, 혹은 타인에게 부상을 초래했을 때 자동차보험이 이러한 피해를 보상한다.

차량 혹은 사람에게 끼친 손해 이외에도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을 때 운전자

는 다양한 법률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예를 들어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혹은 운전자가 중과실을 초래했을 때 운전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이 이러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을 한다면 눈여겨 보아야 할 보험상품들

상해, 재해, 배상책임 등 법률적 위험 이외에도 개인의 채무변제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도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서, 혹은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신용보험은 채무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



에 유족 등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용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주로 가입한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으로 이러한 위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동산종합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산종합보험은 동산종합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보관, 사용 또는 운송 중이거나,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품의 원 / 부자재, 공장의 리스 기계, 전산기기, 의료기기, 방송 / 통신기기 및 장치, 중장비 등 개인 및 기업체가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모든 동산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물론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산에 필요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도 있다.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때 이에 따른 재해를 보상하여 사업주가 입게 되는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업들은 생산활동과 관련해서 더욱 심화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임원이 행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 (Wrongful Act)로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의 구성원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이다.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종업원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부당하게 해고되는 등의 피해가 종업원에게 발생하면, 종업원은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 위험을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 상사가 이성 부하직원, 혹은 동료에게 부적절하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추행(sexual harassment)을 초래하고, 성추행을 입은 피해자가 회사 혹은 성추행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관련 비용 혹은 손실도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Sexual Harassment Insurance)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손실, 배상책임 등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테러리즘 보험이 2001년 9/11이후 활성화되었다. 물론 테러리즘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테러리스트 활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 규모 역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손해보험상품으로는 위험 보장이 어렵지만 독립적인 상품으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영위할 때 현지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해 현지에서 창출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도 손해보험에서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유 경제, 정보기술 등의 발전으로 경제활동의 본질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의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위험 이외의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 위험 등이 그 사례이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의 등장이 기대된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삼성금융연구소 등에서 금융산업을 담당했으며, 현재 국내외 보험업 현황과 성장전략 연구하고 있습니다.

Economic
Class역사로 보는
경제 이야기

고전파를 뒤엎은 케인즈 혁명

불황의 경제학

미국 뉴딜 정책의 상징이 된 후버 댐.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마지막 장면의 배경으로도 등장했다.

2017년 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나라 경제에는 난제가 산적했다. 내수 침체와 제조업 부진에 따른 수출 침체, 실업 증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 양극화가 심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내건 정책은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은 전통적으로 한국 경제가 의지한 경제 패러다임과는 다른 성장론이다. 역대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 이론을 정책 패러다임으로 삼았다. 낙수효과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성

장하며 새 일자리가 생겨 서민 경제도 좋아지고 상위층의 소비가 증가하면 하위층 소득도 따라서 늘어난다는 경제 효과다. 낙수효과를 기대한 정부는 '먼저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해 이익을 내고 투자와 소비를 늘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도 경기 확대 효과가 확산된다'며 대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을 폈다.

낙수효과는 1960년대 이래 1990년대까지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유효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덩치가 웬만큼 커지고 저성장이 대세가 된 21세기 들어서는 실효성을 잃었다. 대기업으로 경제력과 수출 이익이 집중되는데도 고용이나 투자는 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만 심해졌다. 경제 성장 과실이 국민에게 분배되기보다 대기업 차지로 돌아가는 현상도 뚜렷해졌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를 기

대하는 성장 노선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써서 총수요를 키우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전체 계층으로 수요 확대 효과가 확산되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경제이론이다. 분수효과를 기대한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저소득층 실질소득 향상을 꾀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과 케인즈 경제학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포함해서 역대 우리나라 정부가 편 경제정책은 모두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을 토대로 삼은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은 간단히 말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할 때 경제 흐름을 시장에 맡겨 두기보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적절한 정책을 펴자는 정책론이다. 케인즈 경제학이 어떤 이론인지 알고 나면 현실 경제와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안목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창시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경제학사에서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 못지않은 혁명가로 통한다. 마르크스가 나서면서 경제학은 둘로 갈라졌다. 하나는 자본주의가 빈부 양극화를 고조시킨 끝에 멸망하는 스토리에 찬동하는 마르크스 경제학,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 이론에 찬동하지 않는 반(反) 마르크스 경제학 또는 부르주아 경제학이다. 케인즈는 부르주아 경제학 쪽에 섰지만 이전 것과는 다른



존 메이nard 케인즈, 1944년

거시경제이론을 내놓고 부르주아 경제학을 개조했다.

케인즈 이전 경제학 주류는 오늘날 고전파(고전학파)라고 부른다. 고전 거시 경제이론에서는 만성적 수요 부족이나 그에 따른 심각한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전파의 대표 학자인 세이(Jean Baptiste Say, 1767~1832년)가 주장한 이론 곧 세이의 법칙(Say's Law)을 인용해 말하면, 공급은 그에 상응하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법이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생산(즉 공급)을 통해 돈을 벌면 그 돈은 결국 다른 상품을 사들이는 데(즉 수요에) 쓰게 마련이다.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므로 시장 전체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늘 일치한다. 때로는 수요가 공급을 넘거나(초과수요) 공급이 수요를 넘는(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초과수요가 생기면 물가가 올라 초과수요를 없애고 초과공급이 생길 때는 물가가 떨어져 초과공급을 없애므로 수급이

균형을 이룬다. 이런 이치로 경제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항상 저절로 균형을 이루고 성장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불황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기다리는 것뿐이다.

대공황에 무력했던 고전파, 현대 이론 깃발을 올린다

고전파 주장대로면 장기간 수요와 공급이 침체하는 불황이 올 리 없다.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이 장기간 팔리지 않고, 다수 기업이 문을 닫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그렇지 않았다. 구미 세계가 전 없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장기 불황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했다. 당시 주류 경제학은 원인과 해법을 찾지 못했는데, 케인즈가 유명한 저작 《일반이론(1936년)》을 내놓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케인즈는 고전파 이론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시장에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생기면 고전파 이론과 달리 수급이 쉽사리 재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 초과공급(수요 부족)이 생긴다 하자. 고전파 이론대로면 물가는 곧 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면 매출과 이익이 줄어든다. 노동자들이 저항하므로 임금을 내리기도 어렵다. 결국 생산비 인하가 쉽지 않다 보니 판매가를 내리기 어렵다.

물가와 임금이 수급 불균형에 맞춰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못한다면 수급 불균형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럼 판매 부진을 겪다 생산을 줄이고 문을 닫는 기업이 늘어나고 실업이 늘면서 수요 부족에 이어 공급까지 줄어드는 순



뉴딜 정책을 펼칠 당시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이 정책을 반대했다.

서로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불황에 빠진 경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 걷는 규모를 줄여서 부족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줘야 한다. 단, 소비자들이 상품을 갖고 싶어하는 정도(즉 절대 수요)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돈을 내고 상품을 사려는 수요 즉 구매력이 따라야 한다.

케인즈는 대공황이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 곧 총

수요가 현저하게 부족해져 나타난 현상이며, 불황을 타개하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황이 오면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펼침으로써 고용을 늘리고 실업을 줄여 소득을 키우고 유효수요를 늘림으로써 그로부터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황 타개를 위해 ‘유효수요’ 창출을 역설한 점에서 케인즈 이론은 유효수요이론(Effective demand theory)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당시 주류 경제학 처지에서는 케인즈 이론이 주류 경제학을 뒤집어놓는 도전과도 같았다. 고전파는 경제 현실 설명에 무대책임인데 불황의 원인을 명쾌하게 해명했기 때문이다.

케인즈 이론은 이후 수요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을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이론 즉 ‘불황의 경제학(Depression economics)’으로 대접받게 됐다. 불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에서 찾고 정부의 경제 개입을 당연시하는 것도 케인즈 이후 경제학계의 상식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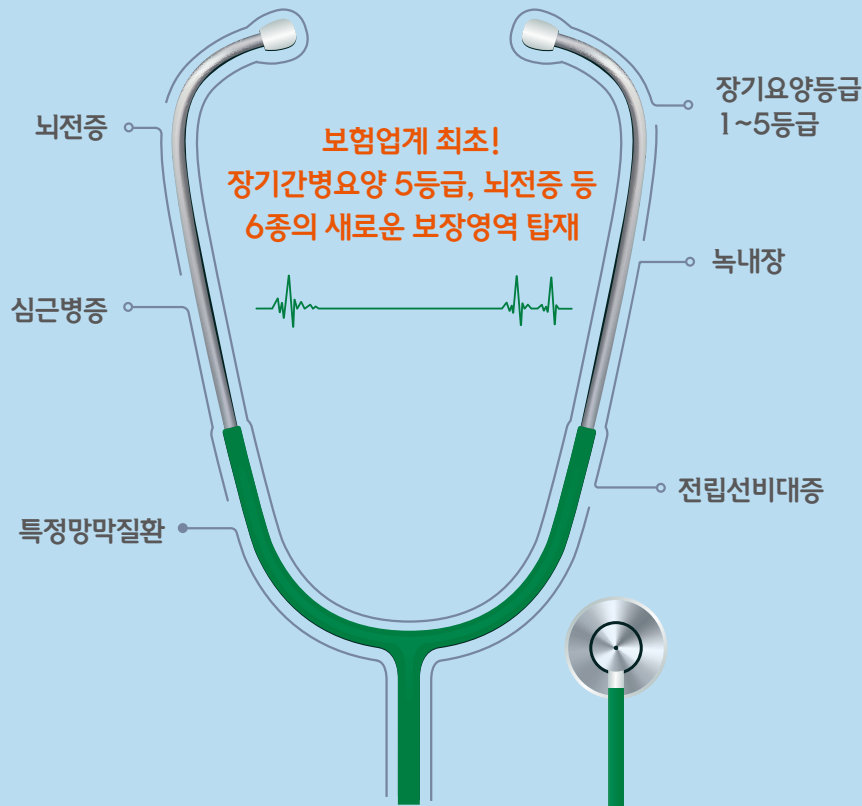


박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일반인에게 쉽게 핵심을 짚어주는 경제교육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인 경제 300문300답 시리즈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더 넓어진 보장범위! 더 알찬 보장내용!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종합보험은 다양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모든 질병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고객님들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이전의 보험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담보 6종을 탑재한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업계 최초 6종의 신담보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은 그동안 담보가 없어서 가입이 불가능했던 보장내용을 대폭 확충하여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신규 보장으로 노인장기요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탑재했습니다.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정으로 1~3등급으로 운영하던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이 3,4등급으로 분리되고, 5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51점인 경우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업계에서는 1~4등급을 보장하는 진단비는 판매중이지만 5등급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은 5등급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개발하여 보장범위를 넓혔습니다.

두 번째 신담보는 ‘뇌전증진단비’로 흔히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최근 3개년 평균 14.4만 명이 앓고 있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신경계 질환에 포함되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본인 치료비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담보는 ‘전립선비대증진단비’입니다. 127만 명이 앓고 있는 전립선비대증은 치료를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5등급도 보장)
2. 뇌전증진단비
3. 전립선비대증진단비
4. 녹내장진단비
5. 특정망막질환진단비
6. 심근병증진단비

위한 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2천 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눈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녹내장진단비’와 ‘특정망막질환진단비’입니다. 해당질환으로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정상회복시키는 것이 어렵고,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해당 담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심근병증진단비’입니다.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 심장 확장 및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질병입니다.

또한 뇌전증, 전립선비대증, 녹내장, 특정망막질환, 심근병증 질환은 수술 이외에도 시술, 약

물 및 주사 등의 치료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 담보는 ‘수술시’로 제한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이 새로 탑재

한 ‘진단비’ 담보는 진단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실질적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술이라도 안심, 77대질병수술비

13대질병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등 13종
특정4대질병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특정근골격계질환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8대질병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등 8종
양성신생물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등 8종 + 생식기양성종양, 유방의 양성종양(추가)
치핵	치핵
특정다빈도3대질환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11대특정질병	패혈증, 파킨슨병, 뇌장질환 등 추가 11종
24대생활질환	근육장애, 비뇨기계질환, 척추, 디스크 등 24종 추가

업계 최다 77대 질병수술비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은 업계 수술비 중 최다인 77대질병수술비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동안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40대질병수술비에 11대특정질병수술, 24대생활질환수술비 및 생식기양성종양, 유방의양성종양 수술을 추가하여 업계 최고 수준인 77대질병수술비

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1~5종수술비를 보장영역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왕절개 요실금 및 치질/치루수술 보장이 추가되었고, 질병1~5종수술비는 소화기계, 비뇨기계 및 제왕절개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장이 더욱 넓어진 담보 범위

신담보(13종)	업계 최초(8종)	업계 최초 6종 신담보 질병후유장애(20~100%) 응급실내원보험금(연간 12회 한)
	당사 최초(2종)	요로결석진단비 통풍진단비
	보장범위 확대(3종)	77대질병수술비 77대질병입원일당 40대질병입원일당
당사 既판매(7종)	암보험 既판매(4종)	위/십이지장, 대장 양성신생물진단비 5대기관 양성신생물수술비 갑상선기능항진증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연간 1회 한)
	운전자 既판매(3종)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 원 한도) 면허정지(120일 한도) 가족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이 강화된 20종의 담보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에는 DB손해보험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요로결석진단비, 통풍진단비, 77대/40대질병원일당, 질병후유장애(20~100%) 등을 포함하여 총 20종의 담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발생하기 쉬운 갑상선기능항진증, 요로결석, 통풍진단비가 추가되어 보장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갱신주기 및 부가서비스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종합보험 갱신주기는 10/15/20년인데요.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에서는 10/20/30년으로 갱신주기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30년

갱신이 추가되어 40세 남자인 경우 한 번의 갱신으로 100세까지 쪽 보장이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도 3년에서 10년으로 제공기간을 확대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되고 안정적인 웰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위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보장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과 함께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설계해 보세요.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요



가족사랑 우체통

평소에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이제 마음 속에만 담아놓지 말고 표현해 보세요.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우체통'을 통해 고객님의 가족사랑 메시지를 전해 보세요. E-mail,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 전해드리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꽃뿔한 당신의 모습, 고마워요

큰 병이 온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네요. 처음엔 초기 인줄 알았다가 3기라는 교수님 말씀 듣고 서로 아무말도 못했죠. 그와중에도 내가 없으면 반쪽이 설움 당하는 것 못 본다며 꼭 살아야 한다고 서로 안고 울었던 것 기억나죠? 그땐 정말 다음해 겨울이 올까 걱정했는데 항암 4차까지 웃으며 견디어 줘서 고마워요. 수술기간 외에는 쉬지 않고 출근하는 모습 정말 대단했어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당신 모습에 박수를 보내요. 여보 20년만 내 옆에 있어줬음 좋겠어요. 완쾌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운동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그땐 당신이 좋아하는 맥주 한잔 하면서 옛 이야기 나누며 즐겁게 삽시다.

우리 딸, 벌써 스무 살이 되었네?

사랑하는 딸 빈아~ 매일 아침 교복을 입고 학교가는 모습만보다 가이제 어여쁜 숙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참 기쁘구나. 빈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엄마의 바람이란다. 중간중간 힘이 들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네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일뿐이니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빈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빈이는 씩씩하게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 사랑해~♡

사랑하는 둘째 며느리에게

예쁜 아이 낳느라 열 달을 배 아파하고 힘든 것 잘 견뎠구나. 나의 며느리로 외워서 고맙고 기특하다. 사랑하는 남편과 서로 의지하면서 승찬이 잘 키우고 화목한 가정 이루며 잘 살길 바란다. 나도 응원하며 도울게. 우리 서로 위하며 열심히 잘 살도록 노력하자. -시어머니가

엄마~ 반찬 다 떨어졌어

엄마를 떠나 타지에서 적응하며 산지 어느덧 6년이 넘었어. 그리고 나도 서른문턱을 넘었고, 힘들 때면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나. 서른이 넘었는데도 아직은 외로울 때마다 엄마를 찾게 되는 걸 보니 아직 어린이 덜 된 것 같아.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해 가끔 반찬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줄 때마다 엄마의 커다란 사랑을 느껴.♥ (벌써 그 반찬이 다 떨어졌네 T_T 엄마 손맛이 그리워.) 늘 멀리서 응원해주는 우리엄마. 나도 언제나 엄마를 응원할게.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사이트'에서 가족사랑을 실천하세요



DB손해보험은 가족사랑을 선도하는 대표 손해보험사로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가족사랑 사이트(dbins-prom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 사이트는 고객이 직접 가족사랑을 키우고 지킬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미 리포터 △프로미 Space 등 다양한 가족사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 우체통 등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방법 : PC/Mobile_www.dbins-promy.com

DB손해보험 브랜드 웹툰, 네이버 공식 연재

가족사연 한 컷 이벤트, 공유하기를 통해 푸짐한 경품 증정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DB손해보험이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가족사랑 브랜드 웹툰을 네이버 웹툰에 공식 연재하고 가족사랑 이벤트를 실시한다.

DB손해보험의 브랜드 웹툰 가족사랑툰은 올해로 3회째 운영되며 가족사랑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가족사랑툰 시즌 1~2 캠페인은 조회수 176만 3천 회, 댓글 수 12,687회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가족사랑툰 시즌3'는 가족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으며, '노곤하게' 등으로 인기 있는 웹툰 작가 '홍끼'와 협업하여 제작되었다. 가족사랑툰은 12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 네이버 웹툰과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캠페인 사이트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후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브랜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DB손해보험 가족사랑 브랜드 사이트에서는 1월 19일까지 네이버 웹툰 연재 기념 이벤트가 진행된다. 첫 번째 이벤트는 '가족사연 한 컷 이벤트'로 가족사랑툰을 감상하고 가족 사연을 남기면, 사연을 선정하여 웹툰 작가가 직접 해당 내용을 담은 한 컷 이미지를 그려준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 소식을 공유하는 '가족사랑툰 소문내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가족사랑툰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애플 에어팟 프로',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가족사랑툰 시즌3의 자세한 내용은 브랜드 사이트(<https://familytoon.dbins-prom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0만 고객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보험!

DB 참총은 운전자+보험

(가입자수 2018년 12월 DB손해보험 기준 /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 2018년 가입자수 기준)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 책임보상
(해당특약가입시)

교통 상해사고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일반 상해사고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1173호(2019.09.09))